AI와 마주한 인간의 언어 공존의 길을 모색하다

석주연 조선대 교수 'AI, 차별, 소통' 출간

"합리성으로 포장된 AI에 의한 차별은 그 은폐성을 더욱 가속화하거나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 AI의 데이터 축적과 알고리즘의 어떤 측면이 은폐된 차별을 더욱 가속화할지 정확히 모르는 현 상황에서 말이다. 오히려 AI의 놀라운 계산 성능, 인간의 언어를 음성으로든 몸짓으로든 유려하게 모방하는 장점이 때로는 그 은폐성을 가려 인간을 매우 헷갈리게 만든다." - 10장 '차별하지 않을 이유, AI에게서 찾다' 中

AI 차별적 언어 패턴 분석

알고리즘 한계 지적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 향한

포용적 설계 제안

기술과 AI가 인간과의 소통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기술의 중립성에 대한 환상이 흔들리고 있다.

석주연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펴낸 'AI, 차별, 소통'(커뮤니케이션북스刊)은 AI가 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차별을 재생산하는지를 살펴본다. 책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과 인간의 존엄 사이에 놓인 균열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책은 AI가 인간의 속성과 욕망이 투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데이터가 이미 사회적 편견과 불균형을 담고 있을 경우, AI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반영하며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MZ세대의 데이트 앱 추천 알고리즘과 같이 일상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AI는 사용자의 선택에 은근한 영향을 미치며 편향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생성하는 텍스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책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에 주목하며, 한국어 환경에서 드러나는 차별적 패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문장 구조나 단어 선택이 특정 성별, 계층, 문화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의 언어 생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AI 편향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소개된다.

인간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휴먼 피드백 강화 학습(RLHF)' 같은 기술적 시도뿐만 아니라,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고려한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담긴다.

그러나 책은 여전히 AI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미세한 차별은 쉽게 감지되지 않아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한다.

책은 궁극적으로 AI와 인간의 협력적 공존을 모색한다. 효율성만을 좇는 기술 낙관주의를 경계하며, 차별 없는 AI를 위한 성찰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가 인간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기술 발전을 바라보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석주연 교수는 서문을 통해 "AI를 활용하는 과정과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성찰하는 인간'만이 차별하지 않는 AI와 인간이 협력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성평등 관점서 살펴본 전남 청년농업인

전남여성가족 정책정보 1호 발간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관점에서 본 전남 청년농업인의 영농·생활 경험'을 주제로 '전남여성가족 정책정보' 제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전남 남녀 청년농업인의 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담았다.

정책정보에서는 지난해 전남도 내 청년농업인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 청년농업인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주요 결과를 소개했다. 응답자 중 남성은 71%, 여성은 29%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주로 본인이 농가 후계자인 경우, 여성은 배우자가 농가 후계자인 경우에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직접적인 생산 활동과 농지·기계 구입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생산 보조활동이나 판로 결정 등 간접적인 영역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교육 이수율은 여성이 더 높았으나, 농기계·생산기술·신기술 등 실질적 영농과 연계된 교육에서는 남성보다 낮은 이수율을 보였다.

특히 성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영역은 '양성평등 인식'이었다.

지역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이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 응답자들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마을 대표는 남성이 맡아야 한다', '행사 접대는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 '성적 농담은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등 인식에 대해 여성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정보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보 제공 확대 ▲성별 분리 작업 완화 ▲영농교육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청년여성농업인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중요한 주체"라며 "재단은 향후 특정성별영향평가, 찾아가는 농어촌 양성평등교육 등 성평등한 농촌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와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여성가족 정책정보'는 2013년부터 성평등 및 여성·가족 분야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문화통plus 2025 여름호(통권 55호)

이번 호는 에디터레터 '얄팍함이 빚어낸 가짜천사'를 시작으로,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 장계가 벽파진에서 올려졌다는 주장을 장군 조카 이분의 '행록'을 통해 제시한다. '운주사 집중탐구'에서는 법화경 체험처로서의 의미와 천도(遷都)가 아닌 천도승천(遷度昇天)이라는 해석을 다룬 박형상 변호사의 주장을 실었다. 특집으로는 광주민학회 40년의 발자취를 조명하며, 전라도문화수수께끼 '함평 충노비의 사연', 김영창 명인의 삶도 소개한다. 신설 코너 '옛편지'와 '전라도 나무 이야기' 등 지역의 기록과 생태를 조명하는 글도 실렸다. 여름 특집으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리뷰 등 콘텐츠를 담았다. /광주문화발전소

▲Pro 나이팅게일의 수다=허현점·이인희·주은주·박미경·최인순 저자

간호사들의 생생한 일상을 담은 산문집이 출간됐다. 간호 경력 20-30년 이상의 현직 간호사와 교수들이 참여해 병원 안팎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술 취한 환자의 폭언, 가족 갈등, 신생아 생명 구조 등 다양한 병동 이야기는 물론, 간호사로 살아가는 고단한 일상과 작지만 소중한 감동이 담겼다. 이 책은 간호사도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코로나와 의료대란을 지나온 의료 현장에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작가마을·1만5천원

▲노간주나무=김해솔 저자

나의 엄마, 나의 아들, 그리고 나. '노간주나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혈연이라는 강력한 연대를 지녔다. 하지만 가장 가깝고 끈끈해야 할 셋은 서로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인다. 소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집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촘촘한 구성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통해 보여준다. 가족과 가정이라는 우리의 오래된 믿음을 서스펜스 요소로 활용한 작가의 영리함은 독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동시에 더욱 작품에 빠져들게 한다. /북다·1만7천800원

▲산타 목욕탕=김은비 글·그림

연우는 크리스마스 아침,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선물을 받았지만, 일하러 나간 부모님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 짜증이 난다. 하지만 우연히 손에 넣은 '산타 목욕탕' 초대권 덕분에 일 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에만 연다는 신비로운 산타 목욕탕에서 산타와 루돌프와 즐겁게 지낸다. 또 산타들이 연우를 위해 준비한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된다. '산타 목욕탕'은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마법을 따뜻한 유머와 상상력으로 풀어내며, 어린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북멘토·1만8천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